

제 13 회 중 국 성균 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 - CN1140

한글 성명: 김은수

나를 설레게 하는 향기.
 나는 향에 민감한 사람이다. 그러파
 보나 길을 걷다가 꽃등을 스치는 음식
 냄새, 사람에게서 나는 저마다의 특유한
 체향,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공기의
 냄새는 모두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
 가운다.
 한글도 보일락 말락 향 정도를 서
 환치에 서 있는 사람이 만약 익숙한 사
 람이라면 그 사람의 결문결이와 헤어스
 타일 등으로도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
 을는 만큼 나는 한 사람에게서 나는 향
 만으로도 꽤 결에, 혹은 꽤 되에 서 있
 는 이가 누구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그
 향은 단순히 체향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
 이 자주 쓰는 향수, 바디로션, 그리고
 섹푸의 냄새가 체향과 뒤섞여 나는 혼
 합적인 냄새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 그
 래서 저마다에게서 나는 향이 다 다른
 거라고 나는 입을 내뿜다.

제 13 회 중국 성균 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 - CN1140

한글 성명: 안은주

나에게 가장 특별했던 향은 엄마의
향기였다. 음식을 해 드 손만 이라는 것이
있충듯 엄마의 향기는 그 어떤 향기보
다 향기로운 향고 불안했던 순간에 안정감
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행복했던 순간에
는 두배의 기쁨이 되어주었다.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엄마의 향기가 내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그가 필요한 문
든 순간에 나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러니 나에게겐 가장 익숙한
향기이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향기로운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그랬던 향기가 내가 성인이 되고
천차 어른이 되어 가면서 나에게서 천
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나에게서는 숨쉬
는 것만큼 습관이 되어버린 엄마의 향
기가 되찾은 내 주변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다. 그 ~~때~~ ^{이후} 언제부터가 엄마의
향기가 없는 공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
했다. 나에게겐 가장 향기로운 순간

제 13 회 중 국 성균 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CN1140

한글 성명: 연운수

의 향이 나와는 완전히 멀어졌다고 생각했고 그 향기를 나의 네뿔목으로 삼지 않아도 충분히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도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바와는 다른다는 걸 자각했다. 그 날은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겨우 겨우 하루를 지나보내고 밀짚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들면 아픈 몸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잠에 들지 못했고 새벽 두시가 되었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집엔 아무런 약도 없었고 약국은 모두 문을 닫았을 시간이다. 아무리 되짚어봐도 잠이 들지 않으니 친구에게 뭐하냐고 문자를 보내왔다. 문자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잠이 들 것 같아서. 그런데 친구에게서 온 첫 번째 판장은 내가 생각한

제 13 회 중국 성균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 - CN1140

한글 성명: 안은수

던 얹잠이 아니었다.
 "아직도 잠이 못 든 거야? 집에 약
 있었는데 가져다 줄까?"
 새벽미라 어두운 것 같아 나도 급
 히 옷을 입고 그 친구를 향해 걸었다.
 이틀날 중요한 시험 때문에 관찮다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어서 알겠다고 얹
 하고 면류문을 나눴었다. 예상대로 길
 에는 지나다니는 차량도 한 두대 정도
 밖에 없었고 인적은 아예 없었다. 한참
 을 걸으니 친구의 슬루엠티 어썬^프레
 보이기 시작했다.
 날씨가 추워 곳속으로 뻗어들어가는
 공기는 아주 차가웠고 그 차가운 공기
 가 몸속으로 들어가니 더 으슬으슬해지
 면서 몸이 떨렸다. 그러더니 추운데 왜
 나왔냐고 묻는 친구의 목소리와 함께
 낯자기 편안함이 몰려왔다. 친구의 각
 정어린 목소리와 그의 향기가 느껴지니
 떨리던 몸도 온기가 드는 것 같았다. 그

제 13 회 중국 성균 한글 백 일 장

접수번호: 2022-CN1140

한글 성명: 연우수

때에야 알았다. 그의 향기가 나에게 안
성감을 느끼게 해 준다는 것을.
원래의 향기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자 나를 제일 설레게 하는 향기였
다. 그 향기가 멀어지기 시작하자 나에
겐 또 다른 향기가 다가와 준 것이다.
나를 설레게 하는 향기가 멀어지려 하
면 또 다시 새로운 향기가 나의 주변
을 감싼다. 이것이 계속 살아갈 수 있
게끔 먼저 멀어진 향기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다.